

이동진의 빨간 책방

27/28

진행 이동진 PD 박미정 작가 허은실 기획 및 제작 왕인정, 허윤경

책, 임자를 만나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오늘 빨간책방 문을 열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로서의 소설에 대한 얘길 했었는데요.

‘책 임자를 만나다’ 오늘 다룰 소설이야말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토니라는 주인공 화자가 에이드리언이라는 명민했던 친구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고, 40년쯤 세월이 흘러 60대가 된 후 그 자살한 친구의 일기장이 자신 앞에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친구에게 보냈던 한 통의 편지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러면서 드러나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량 자체는 길지 않지만 이 책에 담긴 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책 속의 단어와 문장, 심지어 문장부호 하나까지 치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시간’ 과 ‘기억’ 이라는 아주 보편적이고 무거운 주제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에디터 통신

좋은 기억의 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좀 더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가에 대하여 고민해왔습니다. 반면 <좋은 기억의 힘>은 자신의 안 좋은 기억을 지우고,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억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을 조종하고 마음껏 활용하는 삶은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기억의 힘>과 함께 지금까지 살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 즐거운 내일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책, 임자를 만나다’에서 소설을 다룰 경우, ‘소리 나는 책’에서도 그 작품을 읽어드리고 있죠. 오늘도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부분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서술이 무척 인상적인 책이기도 하구요. 첫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얼핏 보면 쪽쪽 적어 내려간 것 같지만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순서도 중요하고요,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마지막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사실도 중요합니다.



니나 인터뷰

포스트 스마트폰, 경계의 붕괴

- Q. 스마트폰 다음 시대가 올 것임에도,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독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 A. 체중계, 손목시계, 안경 등 보다 많은 기기들이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에 연결될 겁니다.
- Q. 국내외를 통틀어 ICT, 정보 통신 기술변화에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기업은?
- A. 구글입니다. 검색엔진을 만들던 회사가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태블릿과 스마트폰, 여기에 통신사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 Q.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A. 첫 번째는 혁신을 게을리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디지털과 적절히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Q. 앞으로 어떤 책을 집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 A. 사회와 개인이 이런 변화 속에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런 내면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내가 산 책

논쟁

사소한 것까지,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라!

언어감각 기르기

손에 잡힐 듯 눈에 보이는 톡톡 튀는 대담집

귀향

<책 읽어주는 남자> 작가 베른하르트 솔링크의 소설

우리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150명의 거장들이 벌이는 맞장 토론!

도쿄 산책자

<고민하는 힘> 강상중 교수, 도쿄를 새롭게 사유하다!



이동진의 빨간 책방

디지털 매거진 5월호 발행!

아이폰 뉴스가판대를 통해
디지털 매거진 Vol.03가
 발행 됩니다
 오감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의 매력을
 직접 느껴 보세요

Vol.03 다운로드 



매거진 미리보기

2013년 5월 1일, 아이튠즈 뉴스가판대에서 이동진의 빨간 책방 VOL.03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책, 임자를 만나다



소리나는 책



2B가 그러러 갑니다



내가산 책